웹사이트도 확인하세요!

"도쿄도 어린이 안전 프로젝트" 웹사이트

이 웹사이트에서는 어린이 사고 예방과 관련된 도쿄도의 다양한 활동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링크 표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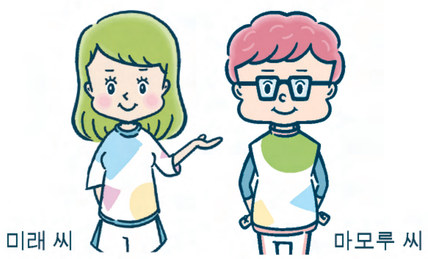
링크 마크가 있는 부분을 클릭하면, 도쿄도가 추진하고 있는 사고 예방의 자세한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이 핸드북은 편집 검토 위원회의 의견을 바탕으로 제작되었습니다.

협력 "어린이 사고 예방 핸드북" 편집 검토 위원회 위원 (경칭 생략)

국립 연구 개발 법인 산업기술종합연구소 주임 연구원	大野 美喜子（Mikiko Ono ）
주식회사 SPACE 대표이사 CEO	福本 理恵（Rie Fukumoto）
국립대학법인 도쿄 학예대학교 교수/학장 보좌	小森 伸一（Shinichi Komori）
주식회사 던크 "쉬운 일본어 프로젝트" 리더	森 順一郎（Junichiro Mori）
합동회사 Art&Arts 사장 "어린이 육법" 저자	山崎 聡一郎（Soichiro Yamasaki）

감사합니다



2024년 3월 발행

【편집 및 발행】 도쿄도 어린이 정책 연계실
기획조정부 기획조정과

〒163-8001 도쿄도 신주쿠구 니시신주쿠 2-8-1

【전화】 03(5388)3812

※게재된 정보는 2024년 2월 기준입니다.

※일러스트는 모두 이미지입니다.

※본 책자에 수록된 일러스트·도면의 무단 복제·전재·복사·대여 등은 저작권법상 예외를 제외하고 금지됩니다.

도쿄도청

개구리 군과 함께 배우는 「바꿀 수 있는 것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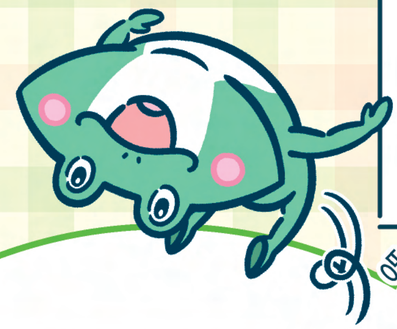
유아편

육아는 신경 쓸 일이 정말 많죠.
그리고 항상 아이가 다치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하지만, 계속 옆에서 지켜보고 있어도 사고를
막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미라이 씨

아이들의 미래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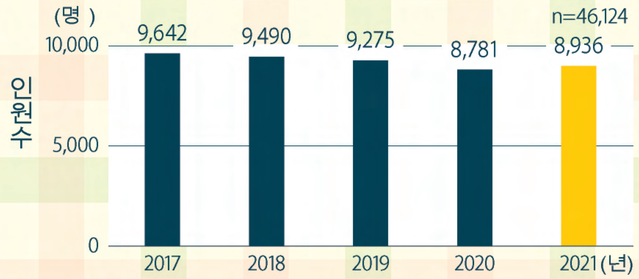
사고를 줄이는 방법은 **바꾸는 것입니다**



카에루 군

환경과 행동을 "바꾸는 것"으로 아이들의 사고를 줄이고 싶습니다

■ 0~5세 응급 이송 인원수 (도쿄소방청 관할구역※)



0세에서 5세까지의 유아 사고로, 5년간(2017~2021년) 46,124명이 응급 이송되었습니다.

출처: "응급 이송 데이터를 통해 본 일상생활 사고 실태"

※도쿄소방청 관할구역: 도쿄도의 이나기시와 섬 지역을 제외한 구역

무엇을 "바꾸면" 사고를 예방할 수 있을까요?

바꿀 수 있는 것을 바꿉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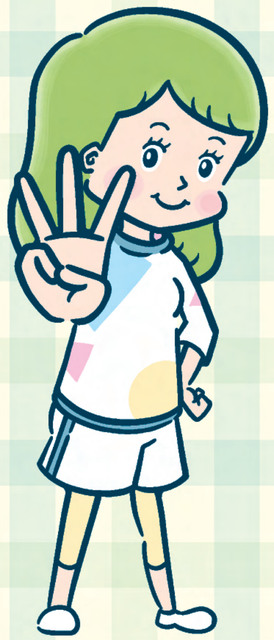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길 바란다"

"하지만, 다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렇다면, 어떻게 사고를 예방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꿀 수 있는 것을 "바꾸는 것"입니다.

중점은 세 가지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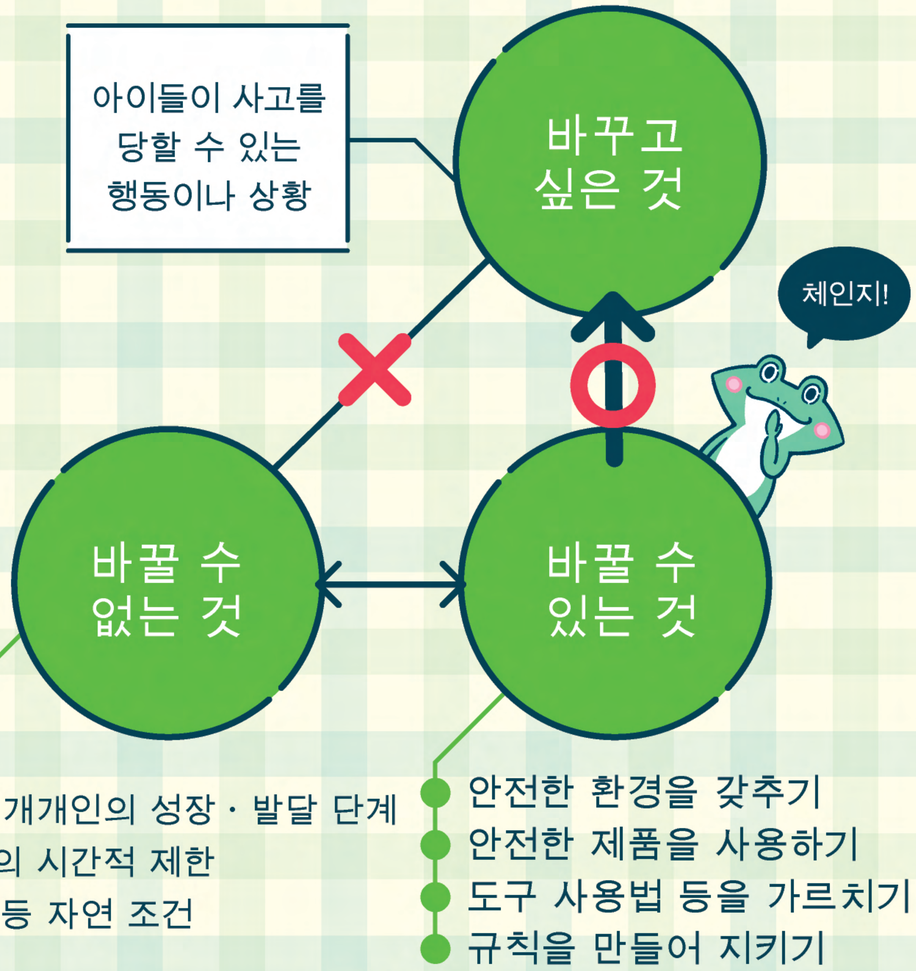
3가지 E

1 Environment
(환경 개선)
안전한 제품을 사용하는 등
환경을 개선하는 것
「위험한 곳을 고치기」

2 Education
(교육)
구체적인 예방책에 대해 배우는 것
「배우기· 전하기」

3 Enforcement
(규칙 변경)
규칙을 재검토하고 새로운
규칙을 만드는 것
「규칙을 바꾸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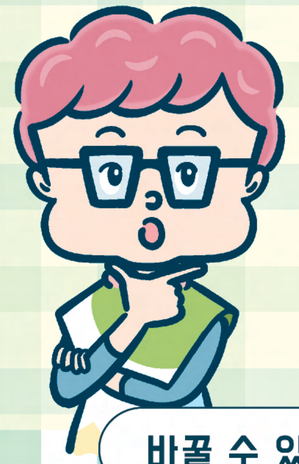
"바꿀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봅시다



- 아이 개개인의 성장 · 발달 단계
- 부모의 시간적 제한
- 날씨 등 자연 조건

- 안전한 환경을 갖추기
- 안전한 제품을 사용하기
- 도구 사용법 등을 가르치기
- 규칙을 만들어 지키기

마모루 씨
아이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공부 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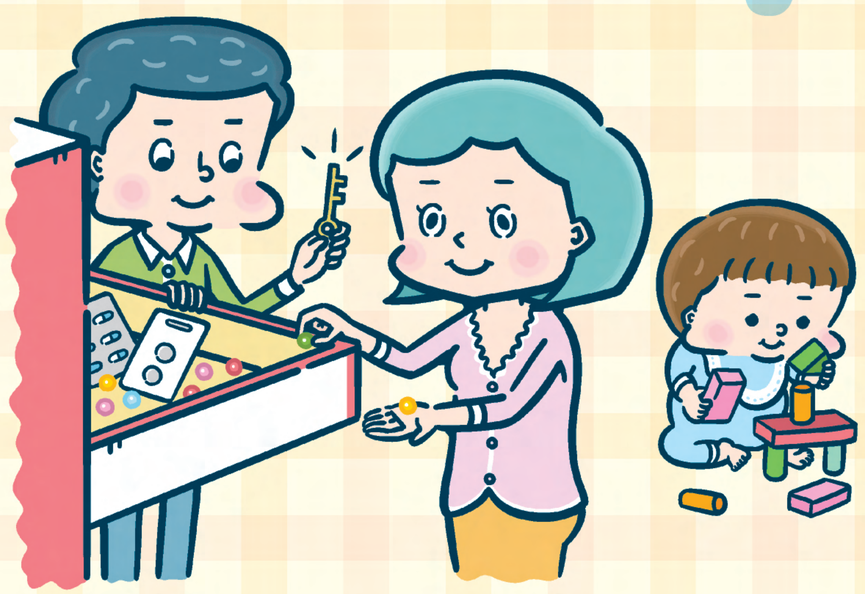
그렇군요!
"바꿀 수 있는 것"
을 생각하고
실천하는 거군요

바꿀 수 있는 것, 예를 들면 →

예를 들어, 버튼 배터리의 오인 섭취 사고

아이는 생후 6개월쯤부터 물건을 잡아 입에 넣기 시작합니다. 버튼 배터리는 직경이 커서 식도에 걸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오인 섭취 시 사망에 이를 위험이 있습니다. 게다가 방전에 의한 화학적 화상으로 소화관에 궤양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응급 이송된 0세 아이 사고 중에서, 배터리 오인 섭취는 "이물질이 걸림 등" 사고 원인 중 포장재, 담배, 플라스틱 장난감에 이어 4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이가 삼키면 위험한 물건은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즉, 사고가 발생하지 않는 환경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많은 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버튼 배터리의 오인 섭취 사고.

■ 영유아 발달 단계의 특징

신생아 → 6개월 → 1세 → 2세 → 3세	
발달 상태	뒤집기 혼자 앉기 붙잡고 걷기 손가락 빨기 기어 다니기 혼자 걷기 손으로 잡기 잡고 서기 달리기· 뛰기

출처: 도쿄도 "영유아 사고 예방 교육 핸드북"

아이들이 겪는 사고를 알아봅시다 →

아이들의
사고 예방

9 "바꾸고 싶은 것"과 "바꿀 수 있는 것"

"바꾸고 싶은 것"1

떨어짐

"바꾸고 싶은 것"2

넘어짐

"바꾸고 싶은 것"3

이물질 걸림

"바꾸고 싶은 것"4

부딪힘

"바꾸고 싶은 것"5

끼임·끼이는 것

"바꾸고 싶은 것"6

화상

"바꾸고 싶은 것"7

베임·박힘

"바꾸고 싶은 것"8

물림·찔림

"바꾸고 싶은 것"9

의사

※이 9개는 도쿄소방청의 "일상생활 중 발생하는 사고"의 사고 유형 분류입니다.

※각 페이지에는 도쿄소방청 관할 구역에서 1년 동안 응급 이송된 5세 이하 영유아의 인원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출처: "응급 이송 데이터를 통해 본 일상생활 사고의 실태" (2021년)

하나씩 살펴봅시다 →

"바꾸고 싶은 것"1

떨어짐

예를 들어 베란다에서 추락하는 사고

도쿄소방청 관할 구역에서는 "떨어짐" 사고로 매년 2,331명의 5세 이하 영유아가 응급 이송되고 있습니다.

당신은 무엇을 "바꾸겠습니까"?

- 발판이 될 수 있는 물건을 치우기
-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조 잠금장치를 설치하기
- 실외기를 난간에서 60cm 이상 떨어뜨리기
- 아이를 남겨두고 외출하지 않기

아이는 에어컨 실외기를 발판 삼아 베란다에서 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이가 스스로 발판이 될 물건을 옮기는 경우도 있으니, 보조 잠금장치를 설치하여 아이가 혼자 베란다에 나가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안전한 주택은 참 좋습니다

육아 가정을 위한 보조 사업 ("아이를 지키는" 주택 확보 촉진 사업)

도쿄도에서는 분양 또는 임대 아파트에 거주하는 가정이 아이들의 안전을 위한 공사를 진행할 경우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링크를 참조하십시오.

"바꾸고 싶은 것"2

넘어짐

예를 들어 옷이나 작은 물건에 걸려 넘어지는 사고

도쿄소방청 관할 구역에서는 "넘어짐" 사고로 매년 2,195명의 5세 이하 영유아가 응급 이송되고 있습니다.

당신은 무엇을 "바꾸겠습니까"?

- 걸리지 않는 옷이나 소품을 선택합니다
- 자주 노는 곳에는 쿠션감이 좋은 바닥재를 깝니다

넘어지지 않도록 예방하기 위해 카펫에 미끄럼 방지 패드를 부착하거나 아이 발에 맞는 신발을 신기는 것도 좋은 대책입니다. 또한, 가구의 날카로운 모서리는 없애도록 합시다.

아이는 쉽게 넘어질 수 있습니다

아이는 몸에 비해 머리가 크고 무게중심이 높기 때문에 균형을 잃고 쉽게 넘어질 수 있습니다. 넘어지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넘어져 부딪혔을 때 다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다음 "바꾸고 싶은 것"도 생각해 봅시다

"바꾸고 싶은 것"3

이물질 걸림

예를 들어 **음식물 오인 섭취 사고**

도쿄소방청 관할 구역에서는 "이물질이 걸림 등" 사고로 매년 1,174명의 5세 이하 영유아가 응급 이송되고 있습니다.

당신은 무엇을 "바꾸겠습니까"?

- 아이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두고, 뚜껑을 단단히 닫기
- 방울토마토와 포도는 4등분하기 (4세 정도까지)
- 땅콩 등 딱딱한 콩류와 견과류는 먹이지 않기 (5세 정도까지)

방울토마토처럼 둥글고 미끄러운 음식은 아이의 목 깊숙이 들어갈 수 있으니, 4등분하여 먹이세요. 또한, 콩의 작은 조각은 기도 안에서 부풀어 기도를 막을 수 있습니다.

작은 노력이 안전으로 이어집니다

아이가 삼킬 수 있는 물건의 크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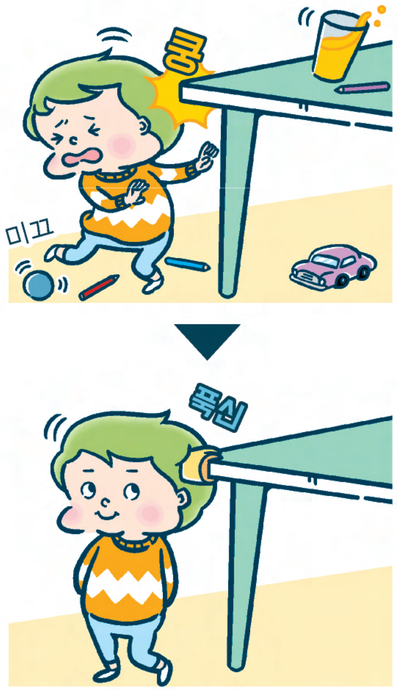
화장지 심지를 통과할 크기(약 39mm)의 물건은 입에 넣어 삼킬 위험이 있습니다. 실수로 삼킬 가능성이 있는 물건이 없는지 아이 눈높이에서 집안을 점검하세요.

"바꾸고 싶은 것"4

부딪힘

예를 들어 **테이블 모서리에 머리를 부딪히는 사고**

도쿄소방청 관할 구역에서는 "부딪힘" 사고로 매년 930명의 5세 이하 영유아가 응급 이송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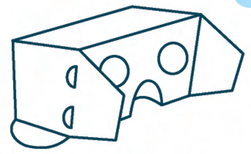
당신은 무엇을 "바꾸겠습니까"?

- 걸릴 수 있는 물건은 치우기
- 가구 배치를 변경하기
- 모서리에 보호 테이프를 붙이기
- 모서리가 둥근 가구를 선택하기

아무리 주의해도 사고는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큰 부상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딪혀 물건이 떨어질 수 있으니, 깨지기 쉬운 물건이나 뜨거운 물건은 불안정한 곳에 두지 않도록 하세요.

유아 시야 체험 안경

어른과 같은 것을 보고 있는 것 같아도, 아이들은 다른 세상을 보고 있습니다. "차일드 비전"이라는 안경형 도구를 사용하면 유아의 시야를 체험하고, 보는 방식과 느끼는 방식의 차이를 인식할 수 있습니다.



차일드 비전 완성도

다음 "바꾸고 싶은 것"도 생각해 봅시다

"바꾸고 싶은 것"5

끼임·끼이는 것

예를 들어 문을 열고 닫을 때 손가락이 끼이는 사고

도쿄소방청 관할 구역에서는 "끼임·끼이는 것" 사고로 매년 281명의 5세 이하 영유아가 응급 이송되고 있습니다.

어떤 제품에서 사고가 발생하고 있을까요?

당신은 무엇을 "바꾸겠습니까"?

- 문 근처에서는 아이의 위치를 잘 확인하기
- 문 스토퍼와 도어 클로저 사용하기
- 손가락 끼임 방지 커버를 설치하기

아이들의 "끼임" 사고 중 가장 많은 것은 수동문과 관련된 사고입니다. 가족이 문 근처에 있는 아이를 보지 못하고 문을 열고 닫다가 아이의 손가락을 끼이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골절 같은 큰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으니, 반드시 대책을 세우세요.

도쿄 생활 WEB "위해□위험 정보"

도쿄도는 문 손가락 끼임 사고 정보를 포함하여 일상적인 제품 사용 중 발생할 수 있는 위해·위험 정보를 발신하고 있습니다.

"바꾸고 싶은 것"6

화상

예를 들어 포트가 넘어져 화상을 입는 사고

도쿄소방청 관할 구역에서는 "화상" 사고로 매년 369명의 5세 이하 영유아가 응급 이송되고 있습니다.

당신은 무엇을 "바꾸겠습니까"?

- 아이의 눈과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두기
- 안정적인 위치에 두기
- 코드리스 제품을 선택하기

김과 증기는 아이들의 흥미를 끌 수 있습니다. 다리미, 전기밥솥, 가습기 등에 손이나 얼굴을 가까이 대다가 화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화상을 방지하기 위해 증기가 나오지 않고, 물이 쏟아지지 않도록 설계된 제품을 사용해 보세요.

"화상"의 악화에도 주의하세요

아이의 피부는 매우 얇고 약하며, 면적도 좁기 때문에 어른보다 화상이 심각해질 수 있습니다. 화상 자국이나 후유증이 남기 쉬운 것도 특징입니다. 아이의 화상 대책은 철저히 마련하세요.

다음 "바꾸고 싶은 것"도 생각해 봅시다 →

"바꾸고 싶은 것"7

베임·박힘

예를 들어 **넘어져 칫솔이 박히는 사고**

도쿄소방청 관할 구역에서는 "베임·박힘" 사고로 매년 169명의 5세 이하 영유아가 응급 이송되고 있습니다.

당신은 무엇을 "바꾸겠습니까"?

- 앉아서 양치질할 장소를 정하기
- 사고 위험이 높은 3세 초반까지는 목 찌름 방지 대책이 마련된 칫솔 사용하기
- 아이의 동선에 물건을 놓지 않기

아이가 양치질 중 넘어지지 않도록, 앉아서 양치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세요. 아이가 스스로 넘어져 박히는 사고뿐만 아니라, 다른 아이가 부딪혀 칫솔이 박히는 사고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안전을 고려한 굿즈로 환경을 "체인지"

안전을 고려한 제품 (세이프티 굿즈)

도쿄도는 일상생활에서 아이들의 사고를 줄이기 위해, 사고 예방 관점에서 개발된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디자인 제품 "세이프티 굿즈"의 보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바꾸고 싶은 것"8

물림·찔림

예를 들어 **개에게 물리는 사고**

도쿄소방청 관할 구역에서는 "물림·찔림" 사고로 매년 49명의 5세 이하 영유아가 응급 이송되고 있습니다.

당신은 무엇을 "바꾸겠습니까"?

- 산책 중인 개는 만져도 되는지 주인에게 확인하기
- 주인이 근처에 없는 개에게는 가까이 가지 않기
- 개가 싫어하는 부위를 만지지 않기

아이의 갑작스러운 행동에 개가 놀랄 수 있습니다. 갑자기 만지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만져도 되는 경우, 먼저 개의 이름을 부르고, 손을 주먹 모양으로 만들어 개 앞에 천천히 내밀어 보세요. 그리고 자신의 냄새를 맡게 하세요.

영유아 사고 예방 학습 소프트웨어

아이의 나이와 성장 단계에 따른 특성을 이해하고, 적절한 대책을 취함으로써 예방할 수 있는 사고가 있습니다. 도쿄도는 아이들에게 가까이 있는 위험을 어른들이 실감할 수 있도록 학습 소프트웨어를 제작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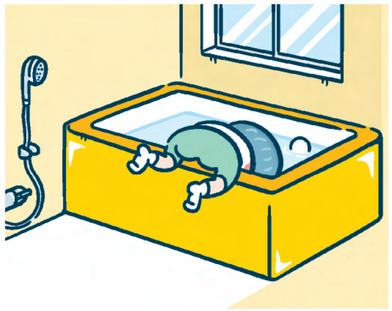
다음 "바꾸고 싶은 것"도 생각해 봅시다 →

"바꾸고 싶은 것"9

익사

예를 들어 욕실 안에서 익사하는 사고

도쿄소방청 관할 구역에서는 "익사" 사고로 매년 23명의 5세 이하 영유아가 응급 이송되고 있습니다.



당신은 무엇을 "바꾸겠습니까"?

- 아이가 어릴 때는 목욕 후 욕조의 물을 빼기
- 세숫대야에도 물을 남기지 않기
- 어른이 머리를 감을 때는 아이를 욕조에서 나오게 하기
- 아이는 어른 다음에 욕실에 들어가고, 먼저 욕실에서 나오게 하기

아이가 가장 많이 익사하는 장소는 자택의 욕조로, 강이나 수영장보다 많습니다. 또한, 목욕용 작은 욕조나 비닐 풀처럼 물이 얕은 곳에서도 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잠깐이면 괜찮겠지라고 방심하지 마세요.

알아봅시다! 일상 속에 숨어 있는 위험!

도쿄소방청에서는 베란다에서의 추락이나 목욕 중 익사 사고 등,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영상을 발신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바꾸고 싶은 것"

방치

예를 들어 통학 버스에서의 방치 사고

모두 함께 "바꿀" 일
보육원이나 유치원 등 시설에서의 대처 사례

- 통학용 버스 등에 안전장치 장착
- 버스 승하차 시 아이의 인원수와 이름 등을 여러 직원이 확인
- 버스 승하차 앱으로 출석 확인

2023년 4월부터 통학용 버스에 안전장치 장착이 의무화되었습니다. 통학용 버스뿐만 아니라, 자가용에서도 방치 사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잠들어 있으니 잠깐이면 괜찮겠지라고 생각하지 말고, 항상 "만약에"를 염두에 두세요.

히야리•핫 리포트

도쿄도에서는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었던 사례를 조사하고, 그 예방 포인트 등을 정리한 "히야리•핫 리포트"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복습해 봅시다

집 안의 "바꾸고 싶은 것"은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창문·베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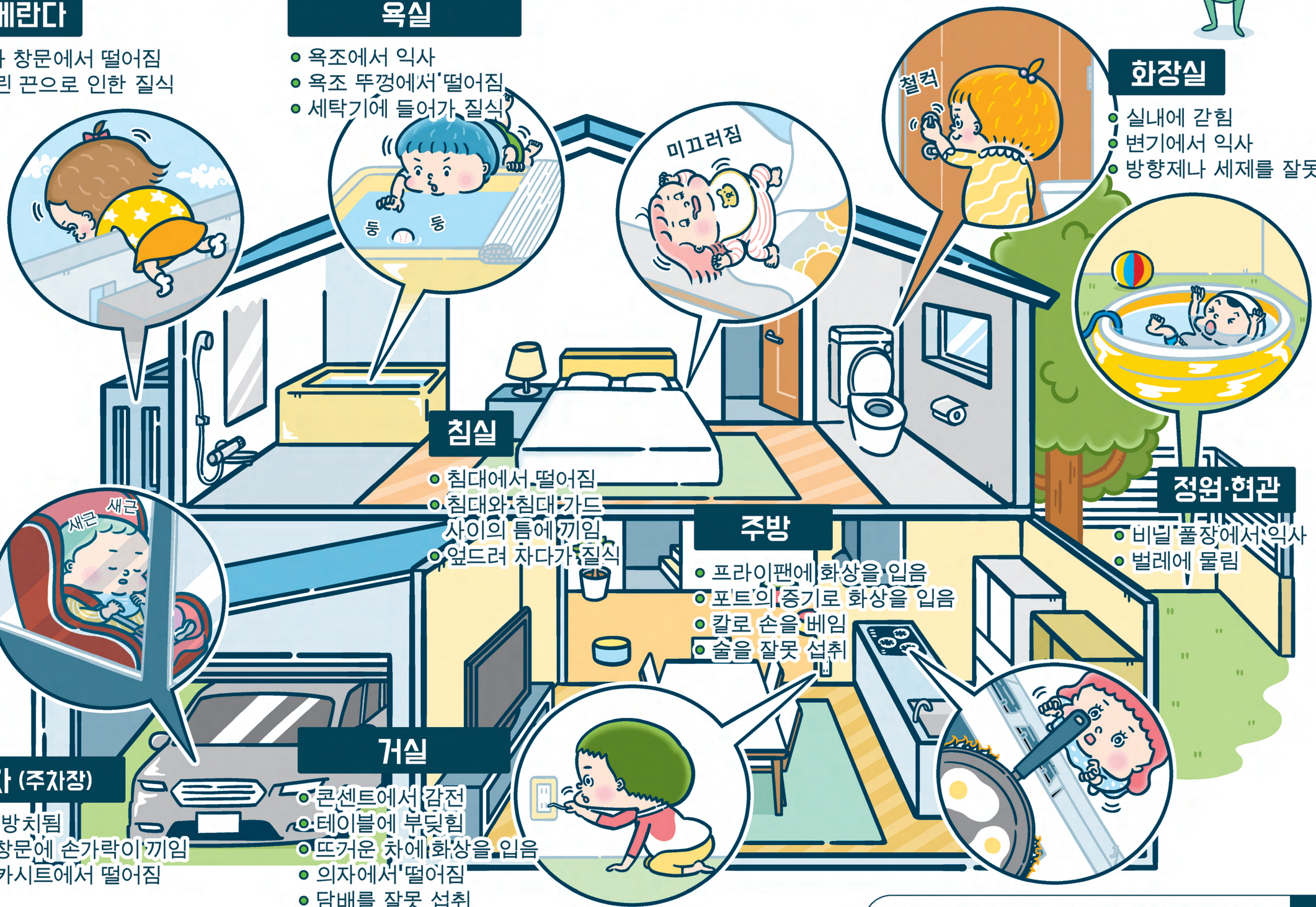
- 베란다나 창문에서 떨어짐
- 롤 스크린 끈으로 인한 질식

욕실

- 욕조에서 익사
- 욕조 뚜껑에서 떨어짐
- 세탁기에 들어가 질식

화장실

- 실내에 갇힘
- 변기에서 익사
- 방향제나 세제를 잘못 섭취



침실

- 침대에서 떨어짐
- 침대와 침대 가드 사이의 틈에 끼임
- 엎드려 자다가 질식

주방

- 프라이팬에 화상을 입음
- 포트의 증기로 화상을 입음
- 칼로 손을 베임
- 술을 잘못 섭취

정원·현관

- 비닐 풀장에서 익사
- 벌레에 물림

자동차 (주차장)

- 차 안에 방치됨
- 문이나 창문에 손가락이 끼임
- 유아용 카시트에서 떨어짐

거실

- 콘센트에서 감전
- 테이블에 부딪힘
- 뜨거운 차에 화상을 입음
- 의자에서 떨어짐
- 담배를 잘못 섭취

어떻게 바꿀 수 있을지 확인해 봅시다

"바꿀 수 있는 것"을 바꿔 아이들의 미래를 지킵시다

미래를

마모루

창문·베란다

여기를 바꿉시다

- 창문에 보조 잠금장치를 설치하기
- 베란다에 발판이 될 수 있는 물건을 두지 않기
- 끈이 없는 롤 스크린으로 바꾸기

욕실

여기를 바꿉시다

- 욕조의 물은 빼기
- 욕실 문에 잠금장치를 설치하기
- 욕조 뚜껑 위에 아이를 올리지 않기
- 어린이 잠금장치가 있는 세탁기를 사용하기

침실

여기를 바꿉시다

- 침대와 벽 사이에 틈이 생기지 않도록 단단히 고정하기
- 유아용 침대 가드는 생후 18개월 미만 영유아에게 사용하지 않기
- 소파에서 재우지 않기
- 가능하면 어른용 침대를 사용하지 않기
- 요와 매트리스는 단단한 것으로 사용하기
- 1세가 되기 전까지는 눕힐 때 똑바로 눕히기

화장실

여기를 바꿉시다

- 손이 닿지 않는 위치에 보조 잠금장치를 설치하기
- 외부에서 열 수 있는 잠금장치로 교체하기
- 변기 뚜껑을 닫기
- 세제 등은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두기

이런 방식으로 바꾸기

정원·현관

여기를 바꿉시다

- 비닐 풀장에서 놀 때는 반드시 동반합니다
- 벌레 퇴치제를 사용합니다

자동차 (주차장)

여기를 바꿉시다

- 차에서 내릴 때 아이를 데리고 내리기
- 문과 창문을 열고 닫을 때 아이의 위치 확인하기
- 발육 단계에 맞는 카시트 사용하기

거실

여기를 바꿉시다

- 콘센트 커버 사용하기
- 모서리 가드 설치하기
- 불안정한 곳에 뜨거운 물건이나 쉽게 넘어질 수 있는 물건 두지 않기
- 벨트가 있는 의자 등 사용하기
- 담배와 라이터 정리하기

주방

여기를 바꿉시다

- 프라이팬 손잡이는 안쪽으로 돌리기
- 증기가 나오지 않는 등 안전한 전기포트 사용하기
- 조리 도구 보관함에 잠금장치 설치하기
- 술은 아이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두기